로컬플러스

군산 나운1동, 난방 취약가구 단열지원사업 '호응'

'군산시 나운1동(동장 고대성)이 추운 겨울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홀몸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 난방 취약가구 단열지원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2월말까지 나운1동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 대해 단열을 지원하게 된다.

난방취약가구에 선정되는 가구는 단열벽지·에어캡·문풍지 시공을 지원받게 되며, 나운1동 일자리사업 근로자 및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단열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고대성 나운1동장은 "조선업 위기로 동절기에 공공일자리가 추진되는 만큼 일자리 사업 발굴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며 "추운겨울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지내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내년 국가예산 6503억원 확보

올해보다 274억 증액… 문화관광분야등 신규 사업 48건 728억원 반영

익산시는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274억 증액되어 4.3%가 늘어난 6,5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 6,222억원보다 281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사업 분야를 보면 문화관광분야 등 신규 사업으로 48건 7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복지예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사업비등 5,775억원을 확보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3D휴대용 스캐너 개발사업비 6.4억,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67억원, 폐기물조치명령 비용부담금 산출용역비 1억원, 서동테마역사시설사업비 4억원, 새만금 상류비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0억 등이 반영되어 익산발전에 청신호를 밝혔다.

계속사업으로 익산~대야 복선전철화사업 1,000억원,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153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62억,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10.7억, 고도보존육성사업 25.8억,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5억,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7억, 2018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 30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120억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했다.

전년도와 다르게 익산시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며 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권 및 도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5억,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 등을 증액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익산시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과 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비 예산 미확보,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일부 확보되어 지역숙원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같은 성과는 국가예산을 부처 단계에서부터 이춘석, 조배숙 의원과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정부동향을 파악하여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시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요구하여 얻어진 결과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많은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재학생 60명 대상

군산해경 '치안현장 견학 프로그램'

해양경찰의 꿈을 그리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해양경찰학과 재학생이 군산해경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해양경찰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치안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산해경에 도착한 학생들은 먼저 해양사고의 중심에서 빠른 판단력으로 골든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치안 종합상황실의 각종 시스템을 둘러봤다.

이어 연간 4~5만 척의 선박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VTS)와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찾아 최신 해양장비를 체험해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장인식 서장이 직접 '新 해양시대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동안 강단에 섰으며,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면서 열띤 토론도 이어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현아 학생은 "전공서적이나 언론을 통해 접한 해양경찰과 현장에서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사명감과 진지함에서 또 다른 해양경찰을 보았다"고 말했다.

장인식 서장은 "해양경찰의 눈부신 발전을 꽃피울 미래 경찰관들이자 해양경찰에게 가감 없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학생들과의 만남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훈련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 피드백을 얻고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 연말 숙취운전 특별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숙취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중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발생한 사고는 전체 음주교통사고의 21.5%(18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 33.4%(1명), 부상자 16.1%(25명)가 이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전체 음주교통사고 중 새벽 숙취운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대학본부 이전사업 45억원 예산 확보

정부예산 10억원보다 35억원 증액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지난 3일 통과된 2017년 정부예산 최종 확정 결과 '황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정부예산인 1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45억4700만원을 확보했다.

또 대학본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설계비 2억2900만원의 국비시설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군산대학교는 대학본부 이전사업과 대학본부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안정적으로 병행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산대는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황룡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이곳으로 대학본부를 이전하고, 현재의 대학본부를 지역민의 접근이 더욱 용이한 새로운 도서관으로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부족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대학본부 소속 부서가 집중화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도서관도 다양한 열람실과 개인학습실, 그룹학습실, 북카페 등 현대적이고 시대에 맞는 열람공간이 제공되는 등 교내 시설환경 개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균 총장은 "노후화된 황룡도서관과 대학본부의 위치변경 및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더욱 질 좋은 학습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안전점검의 날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

겨울철 대비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익산시가 제24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5일 오전 영등동 일원에서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시 자율방재단, 익산LP가스협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대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자연재난대비 안전사고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안전의식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 후에는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익산지사, 전북에너지 서비스(주)와 합동으로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5세대를 방문해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을 실시했으며 소화기가 없는 가구에는 소화기를 지원했다.

정헌율 시장은 "동절기에는 특히 화재, 폭설,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협력 하에 올 한 해 동안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52세대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영등1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420만원 기탁

익산시 영등1동 통장협의회가 온정을 나누는 '희망2017나눔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420만원을 기탁했다.

12월 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살피는데 앞장서고 있는 영등1동 통장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복지통장들이 십시일반 모은 420만원을 영등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영등1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범용 동장은 "기부된 소중한 성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맞게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서부보훈청-익산마한로타리클럽,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은 지난 3일 익산 영등동에 위치한 솜리뼈다귀탕 입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2016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 직원과 로타리클럽 회원 등 50여명이 모여 배추1,000포기를 정성껏 버무린 김장김치는 전북 6개시·군 보훈가족 100세대에게 사랑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우실 지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의 후원과 많은 회원들의 손길이 함께하여 보훈가족에게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면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회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과 함께하는 지역 봉사단체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사랑 나눔에도 앞장서 나눔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보훈가족에게 희망이 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